

## 캠퍼스 선교단체들, 신학기 맞아 조직 혁신·선교전략 강화

### CCC·UBF·IVF 등 다시 뜨거워지는 부흥의 현장

2026년 새 학기를 맞아 한국 대학 캠퍼스를 향한 선교 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라는 도전 속에서도 주요 선교단체들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다음 세대 복음화'라는 공동된 목표를 향해 사역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선교계를 대표하는 주요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올해 핵심 사역을 살펴봤다.

#### ◆ 한국CCC, 'Doing SMART' 전략으로 선교 환경 변화 대응

한국대학생선교회(한국CCC·대표 박성민 목사)는 2026년 새 학기를 맞아 디지털 기술과 현장 사역을 결합한 'Doing SMART' 전략을 중심으로 캠퍼스 선교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CCC는 디지털 공간을 중요한 선교지로 인식하고 데이터 기반 사역을 통해 선교 대상의 필요를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결합

한 하이브리드 양육 시스템을 통해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제자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세대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는 '원니스(Oneness)' 사역을 추진하며, 졸업생들이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돕는 P2C(Power to Change) 사역도 확대하고 있다. 2028년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조직 혁신을 추진하며 차세대 리더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드브라 프로젝트'와 미래 리더 발굴을 위한 '넥스팅(NEXTing)'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선교 분야에서는 유학생 선교와 해외 사역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를 담아내는 그릇은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며, "디지털

대륙의 정복자로서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전했다.

#### ◆ UBF, 성경 중심 제자훈련과 글로벌 선교 확대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대표 김노헤미)는 설립 초기부터 이어온 성경 중심 사역을 바탕으로 캠퍼스 복음화에 힘쓰고 있다.

UBF는 올해 '공동체 성경 읽기(PRS)'와 '일대일 성경 공부'를 핵심 사역으로 삼아 대학생들의 신앙 기초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국 각 센터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와 앱을 활용해 성경 공부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전 세계 90여 개국에 구축된 선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해외 단기 선교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 시각을 갖춘 전문인 선교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UBF 관계자는 "캠퍼스 사역의 핵심은

결국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이라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UBF 네트워크가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영적 훈련장이자 선교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CBF)와 중고등부(JBF) 사역을 통해 신앙의 다음 세대 계승에도 힘쓰고 있다.

#### ◆ IVF, '캠퍼스와 세상 속 하나님 나라' 운동 전개

한국기독교학생회(IVF·대표 신승철)는 '캠퍼스와 세상 속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핵심 비전으로 학생 주도의 복음 운동을 펼치고 있다.

IVF는 소그룹 중심의 성경 공부와 공동체 모임을 통해 신입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건강한 기독교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과 일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도록 '일상의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 실업, 기후 위기 등 사회적 이슈에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응답하는

사역도 이어가고 있다. IVF 출판부(IVP)를 통한 신학 서적과 콘텐츠 보급은 대학생들의 지성적 신앙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제 복음주의 학생회(IFES)와의 교류를 통해 해외 기독교 학생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는 사역도 진행하고 있다.

#### ◆ 예수전도단, 다음 세대 부흥과 제자훈련 사역 집중

예수전도단(YWAM Korea)은 '예배와 다음 세대'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영적 각성과 제자훈련 사역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예배 모임과 중보기도 운동을 통해 영적 회복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자훈련학교(DTS)와 다양한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제주 열방대학(UofN)을 중심으로 글로벌 리더십 개발 과정과 성경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선교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청년과 청소년 사역을 중요한 과

제로 삼아 학교 신앙 공동체인 '스쿨처치' 비전을 확산하고 있으며, 미디어와 문화 영역을 활용한 선교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 SFC, 개혁주의 신앙 바탕 캠퍼스 복음화

학생신앙운동(SFC·대표 공경민 목사)은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캠퍼스 복음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SFC는 전국 리더십 수련회와 훈련 과정을 통해 신학기 사역 준비를 마쳤으며, 대학 내 소그룹 모임을 중심으로 학생 제자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캠퍼스 선교와 지역 교회를 연결하는 사역을 확대해 학생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청소년 SFC 비전 캠프와 신앙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SNS 성경 읽기 운동과 온라인 신학 강좌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복음 전파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장지동 기자

## '거룩한 방파제 부산대회' "차별금지법·민법개정안 막아야"

### 부산역 앞에서 열려

부산 지역 교회가 최근 차별금지법과 낙태 법안, 민법 개정안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응을 촉구하는 '거룩한 방파제 부산대회'를 개최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와 부산교회총연합회 등 부산지역 4개 교계 단체가 주최하고 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부산역 앞에서 열렸으며, 교

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차별금지법과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을 촉구했다.

부산성서화운동본부 부이사장 임석웅 목사는 창세기 1장 26-27절을 중심으로 전한 설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의 근본은 성 정체성"이라며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릴 때 사회적 재난이 온다"며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역시 이러한 질서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목사는 특히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낙태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발언을 혐오행위로 규정할 수 있고, 목회자가 동성결혼 집례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을 물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들이 낙태약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낙태 법안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차별금지라는 말은 좋아 보이지만 그 내용의 실상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의 해악성은 분명히 말해야 한다"며

"국회 홈페이지 등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상철 목사는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악에 대한 동의"라며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건강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차별금지법안과 민법 개정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차별금지법안은 남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부모의 교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한 번 제정되면 그 굴레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만큼 제정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며 "우리의 침묵이 결국 자녀 세대의 눈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교회총연합회 김형근 목사는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성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며 "차별금지법을 막아 건강한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거룩한방파제 특별위원장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담임)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

다"며 "당시 교회가 선지자적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사회가 교회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교회가 차별금지법 반대 등 성경적 가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선지자적 행동"이라며 "엘리아가 아합 왕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진리를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손승정총선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언급하며 "역대 가장 강력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김원평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법안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한 트랜스젠더의 여성 목욕탕 출입을 막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미국 갤럽 조사에서는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LGBT라고 응답한 결과도 발표했다"며 "이러한 흐름이 우리 사회에도 확산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법률적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 개념을 제도적으로



단체 사진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부기총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성별의 구별 자체가 혐오 표현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공고화되면 성별 구분이 약화되고 성 중립 화장실 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신대국지도자연학 전문위원 김한식 목사는 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회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종교가 아니라 법이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교회의 존립 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법안은 교회의 설립 허가 취소나 강제 해산, 재산 귀속 등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 교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합법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또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은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이지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교회가 성경적 가치에 따라 차별금지법이나 낙태 법안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차별금지법과 관련 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교회와 시민들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기도했다. 노형구 기자

‘핑팡 어린이 말씀송’, ‘속속 바이블 말씀송’ 발매 >> 7면

‘결혼 주도권은 하나님께’ 청년 결혼 콘퍼런스 개최 >> 22면

고난주간·부활절에 어울리는 피아노 찬송가 앨범 >> 24면

##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